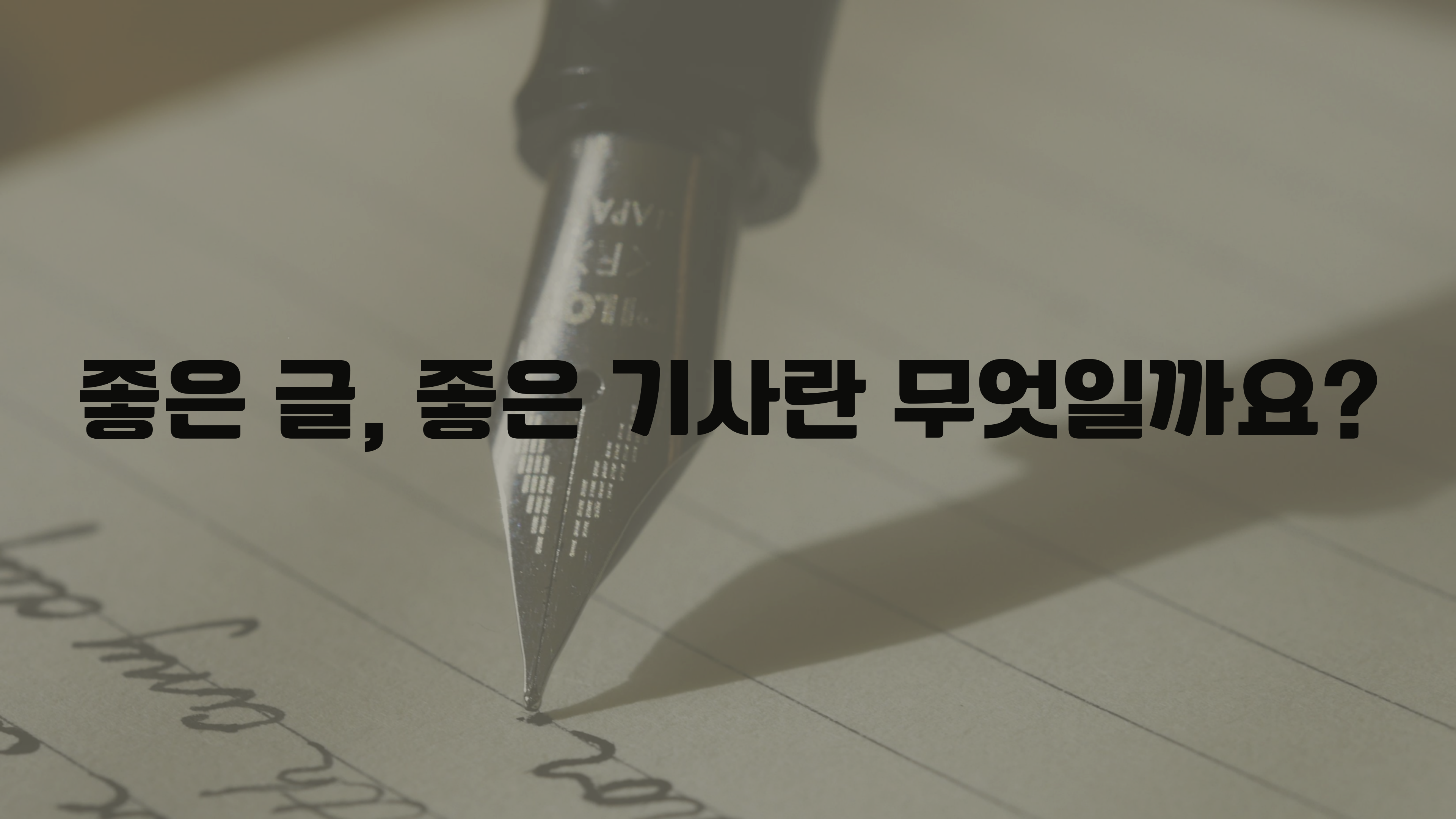


기자님도 기레기이신가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융합철학워크숍 5조

A close-up, slightly blurred photograph of a fountain pen writing on a piece of paper. The pen is dark-colored with some gold or light-colored text on its barrel, including 'PILLO', 'FX', and '14PA'. The nib is touching the paper, and a small drop of ink is visible. The paper has faint horizontal lines and some cursive handwriting is visible in the lower left corner.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light brown.

좋은 글, 좋은 기사란 무엇일까요?

미디어, 언론, 기자





'미디어', '언론', '글쓰기', '비평'

= 철학과 학우들의 관심 분야



미디어

사실과 사실 관계

진실과 의도된 왜곡

보도 윤리와 자유 보도

사회적 통념에서의 보도 윤리

미디어 매체를 통틀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상식 선에서도
기자는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함’이 강조된다.

성주현 기자

단국대학교 철학과 14학번
현) 뉴시스 편집부 기자

학부생 시절 '단대알리'에서
취재 기자 경력 有



*단대알리: 현재는 '대학언론 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 된 바 있음.
학교 본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압력에서 벗어난 언론 활동을 위해 설립된 협동 조합

학생 기자 vs 현직 기자의 간극

“독립언론이면은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취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님 출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슭으로 인터뷰를 하여 업무추진비가 과연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은밀한 회계 구조 같은 것도 많이 건드렸었구요.”

“학생회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총학생회의 구조적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조금 더 저희가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일 때보다 기사에 진심과 열정이 담겨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주현 기자님 인터뷰 中

학생 기자 vs 현직 기자의 간극

“데스크의 압박이 있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 독자들이 많이 봐주시고 원하시는 기사도 어느정도의 괴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정도 타협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총장님의 ‘업무추진비’와 같이 굵직굵직하고 묵직한 사건들에 비해서 좀 ‘연성 기사’라고 하는, 가십성 기사들에 제 노력이 더 들어가다 보니 회의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언론에서도 간혹 우리 사회에 좀 꼭 필요한 메시지들로 편집한 기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꼭 연성 기사를 다루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기사는 통한다는 것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주현 기자님 인터뷰 中

인터뷰이 선정 계기

데스크

실질적 최종 작성자

편집부

중간 작성자

펜 기자

원 작성자

열정적이었던

펜 기자로서의 경험과,

데스크의 압박을 받은

편집 기자로서의 경험

인터뷰 영상

- ▷ 기레기 = 진정성이 결여된 기사를 쓰는 기자
- ▷ 생각보다 훨씬 더 데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자들
- ▷ 기레기라고 불릴 만한 기사를 써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 ▷ ‘진정한 보도 윤리’와 ‘상업적 구조’는 평행선
- ▷ ‘좋은 기사’에 대한 색다른 의미 부여의 필요성 인지

프로젝트의 발전

▷ 언론계의 이상과 현실

→ 진정한 보도윤리가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 우리가 ‘기레기’라고 욕하는 기자들의 기사들과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보도 윤리, ‘과연 그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 있나?’

▷ 상업 구조에 얽힌, 현실과 타협한 기사에 대한 우리의 기성적인 답변을 재정의해보자!

현대 사회 언론의 새로운 역할, 대중들의 소비 이론을 제시한 장 보드리야르



▷ 장 보드리야르

1929-2007 프랑스의 철학자 · 사회학자

▷ 주요 저서

〈사물의 체계〉 (Le Système des objets : la consommation des signes, 1968)

〈소비의 사회〉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1970)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와

상품화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시대의 발전에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자본주의와 소비에 대해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함.

『소비의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 "상징의 기호를 통한 소비"

▷ 오늘날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표현과 만족을 위한 '기호적 가치'에 치중되어있음.

▷ 소비의 주체는 소비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

'기호의 질서'와 언론의 존재 이유

- ▷ 현재의 언론은 민주주의를 대표하여 개개인의 경향성을 대변
- ▷ 우리는 개인의 자기 표현 + 자아 실현의 욕구에 기반하여 언론을 소비 → 지금의 언론
- ▷ 언론은 사람들의 필요와 소비에 근거하여 존재

경향성과 언론의 자유 남용

- ▷ 누구든지 언론인이 될 수 있고, 어느 때나 언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기사라도 삽시간에 전파될 수 있음.
- ▷ 전파된 기사가 거짓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되는 일이 드물.
- ▷ 이를 기반으로 자극적이고 거짓된 기사가 범람 중

'실재'

현대 사회에서는 외견에 지나지 않는 환상이 실재를 대체하고,
그렇게 실재를 대체한 수많은 이미지와 기호들은
더 이상 실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실재보다 더 실재같은 것이 되어 버림.

'실재의 소멸'

- ▷ 실재의 과잉은 실재의 소멸을 낳는다.
- ▷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실재에 대한 소멸을 일으킨다고 바라보았다.

언론과 실재의 소멸

- ▷ 실제 사건은 언론을 거쳐 실제 사건보다 더 실제같은 또 다른 원본, 즉 '기사' 로 변모한다.
- ▷ 오늘날 우리는 가상과 실재의 구분이 불가능한 시대, 인터뷰도 통계도 녹취록도 모두 꾸며낼 수 있는 21세기 POST-TRUTH 시대, 탈진실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됨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

‘매커니즘에 대한 직시’

언론의 '경향성'을 좌우하는 것

- ▷ “기자들이 신념 기사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현실에 닥친 이유”
- ▷ “데스크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이유”
- ▷ “기레기 평가를 받는 글을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 대중들의 기호가 곧 언론의 ‘경향성’을 좌우한다.

소비 사회의 언론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대중들에게 필요한 태도

→ 기레기라고 폄하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개개인의 미시적인 문제는 아님.
정치면에서 보수/진보가 갈리듯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개인의 경향성이 곧 집단의 경향성으로 강해짐.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LITERACY :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편향적으로 다루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는 연성 기사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함.**

그런데, 그걸로 끝내도 괜찮을까?

‘언론이 실제로 놓인 현실’ 과
‘우리가 언론에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쓴 글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사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왔는가?

나는 어떤 경향의 언론사를 구독해왔는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글들은 무엇이었는가?’

성주현 기자님과과의 비하인드 토크중에서 ...

“기자들도 소속된 언론사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나요?”

그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중략)

기자 일을 하면 할수록 언론사의 성향과 개인의 성향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성주현 기자님과 비하인드 토크중에서 ...

모 언론사 부장은 회의 시간 때,

“우리는 진보 언론사인데 진보적인 의견만을 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성주현 기자님은

언론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사들을 주로 판매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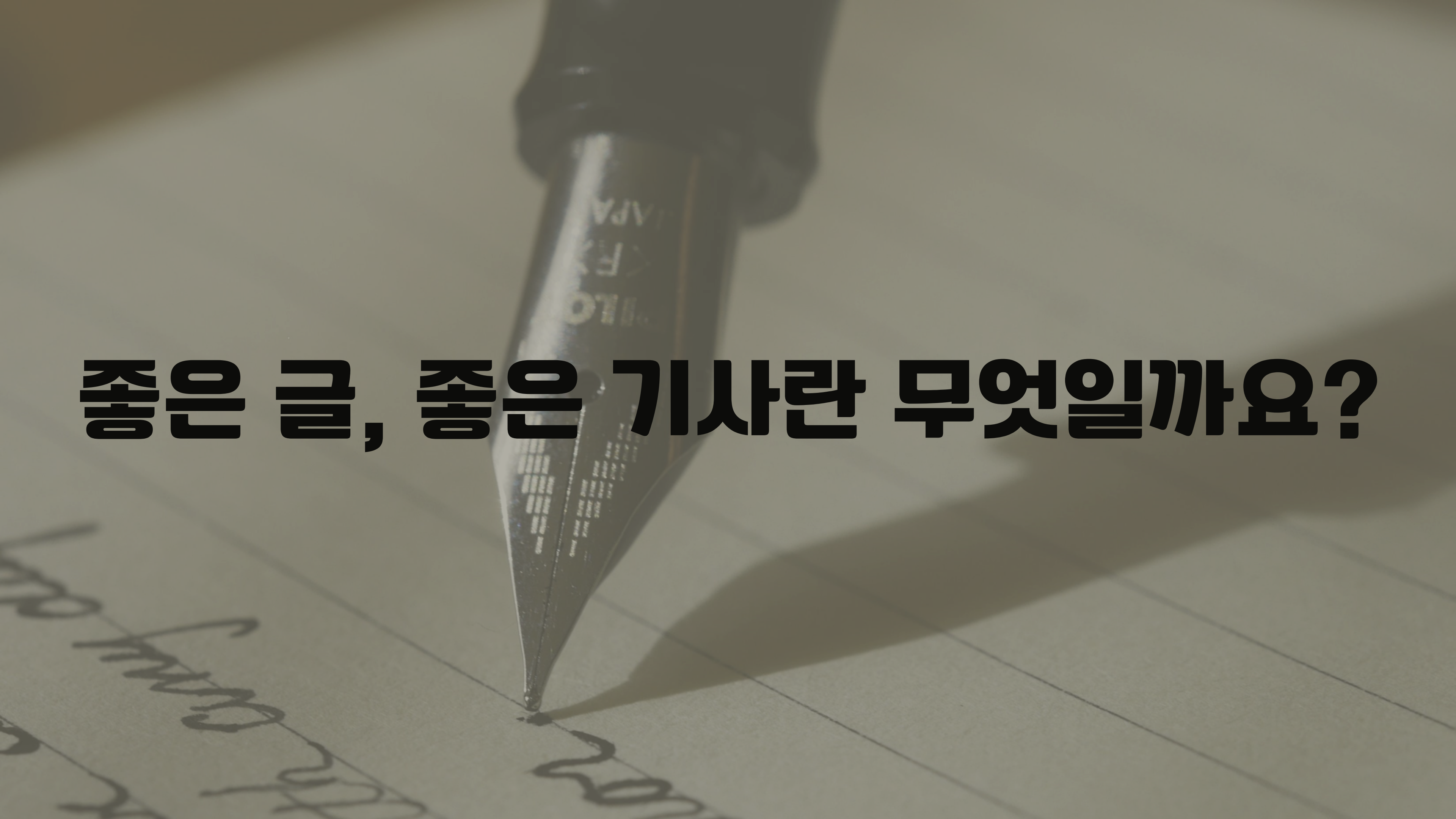
쓱쓱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언론사가 갖는 성향은 소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지금 시대 언론의 역할은
대중의 '기호'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을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실재들

우리의 기호를 대변하는 다양한 실재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A close-up, slightly blurred photograph of a fountain pen writing on a piece of paper. The pen is dark-colored with gold-colored accents and the word 'PILLO' is visible on its barrel. The nib is touching the paper, creating a small ink dot. The paper has faint horizontal lines and some cursive handwriting is visible in the lower-left corner.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light brown.

좋은 글, 좋은 기사란 무엇일까요?